

■ 그림 여행



‘지스몽다’의 포스터
(Poster of ‘Gismonda’ c. 1894)

알폰스 무하 (Alphonse Mucha 1860 - 1939)
(채색 리토그래프 216 cm x 74.2 cm 프라하 무하 미술관)

알폰스 무하는 체코 태생의 화가였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나 고향 프라하의 미술학교 입학에는 실패했다고 전해진다. 무하는 포기하지 않고 오스트리아로 가서 극장 세트와 풍경화를 그리는 회사의 수습생 생활을 했다. 그러나 무하의 재능을 알아본 벨라시 백작이라는 후원자가 그를 뮌헨 미술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원했고, 다음에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미술 공부를 하도록 도왔다. 벨라시 백작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무하는 파리에서

가난한 미술가로 살아가게 된다.

신문, 잡지, 소설 등의 삽화 제작을 하던 무하는 극장에서 포스터 그리는 일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1894년에 극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파리의 유명 배우 사라 베른하르트가 주연한 ‘지스몽다’ 연극의 포스터를 우연히 그리게 되면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전통 미술 교육을 받은 탄탄한 그림 실력과 삽화 제작의 경험을 살려 높이가 2미터가 넘는 화려한 포스터를 만들어 냈는데 파리의 대중들은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하 특유의 스타일에 열광했다.

무하의 포스터로 인해 대성공을 거둔 사라 베른하르트는 무하를 전속 포스터 제작자로 임명했고, 무하는 세트, 의상, 보석 등을 연달아 제작했다. 이후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여러 상업 제품들도 디자인했다. 장식성이 강한 무하의 작품 스타일은 ‘아르누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한 시대를 특정 짓게 된다.

실물 크기가 넘는 이 포스터 속에 사라 베른하르트는 비잔틴 귀족의 복장을 하고 난초로 머리 장식을 하고 있다. 그녀가 서 있는 배경에는 그녀의 이름을 새긴 아치가 그려져 후광처럼 얼굴을 감싸고 있는데 이는 무하 특유의 스타일로 그 후 그의 모든 포스터에 등장하는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가 되었다.

이 포스터는 무명의 무하에게 말 그대로 하룻밤 새에 명성을 안겨 주고 ‘아르누보’ 스타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컬어지게 된다. 순수 미술로서 작품성도 인정 받고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며 후대의 디자이너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림이라 무하 개인에게는 물론이요 미술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김동백》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

Brother's
청소재료상
Janitorial Supplies



도매
최저가격



무료배송

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
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

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
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

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 약품
화장지 / 각종 종이 / 타일 / 대리석
카펫 샴프 기계 / 왁스 기계
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

Open : Mon-Fri 9am-6pm / Sat 10am-4pm

(562) 920-9090
(562) 920-9595

Fax. 562-920-9596

16211 Bellflower Blvd. Bellflower, CA 90706



Kye's Microblading

카이 반영구화장

Grand Opening Special

눈썹시술 \$350 > **\$280**

- 3D 자연눈썹
- 4D 자연눈썹
- 아이라인
- 남자눈썹
- 입술 틴트
- 매력점
- 탈모커버
- 속눈썹 리프팅
- 브티, 바디타투



909-706-7299



Kyes.studio



Kye's Microblading

7700 Orangethorpe Ave., #3, Buena Park CA 90621 (뷰티박스 내)